

“북 군사력, 한국에 위협 안된다”

렘즈펠드 ‘작통권 이양’과 관련 발언 주목 “북, 대량살상무기 확산 배후로 더 위협적”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7일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보다 다른 나라나 테러범들에게 대량살상무기(WMD)를 확산시키는 존재로서 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최근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전시 작전통제권을 2009년 한국군에 이양하겠다고 통보함으로써 작통권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을 그대로 노정하는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날 알래스카에서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과 미·러 국방장관 회담을 갖기 전에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요격미사일이 배치돼 있는 알래스카의 미군기지인 포트 그릴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은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진정한 위협은 한국에 대한 위협보다는(WMD)확산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면서 북한 조종사들의 연간 비행시간이 미군 조종사의 4분의 1도 안되는, 50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북한군의 전력이 피폐화된 점과 한국의 군사력이 개선된 점을 언급, “나는 솔직히 북한을 한국에 대한 당면한 군사적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이 2009년 전시 작통권을 한국에 이양하겠다는 미 국방부가 제시한 논거와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군의 향상된 능력(전투력)을 신뢰하고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강으로 역지력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2009년 전시 작통권을 조기 이양해야 한다는 미 국방부의 입장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어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이 한국보다 미국에 더 위협이 되는 나라는 질문에 대해선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미군은 지난 달 4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대포동 2호를 비롯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자 알래스카 MD 요격미사일의 실전 가동에 들어갔다.

럼즈펠드 장관은 지난 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잠재적인 구매자에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보여주지 위한 것이었다며 “그들(북한)은 위조한 달러화를 팔고 불법마약을 팔며 미사일 기술을 파는 등 다른 국가나 잠재적인 테러단체들에게도 무엇이든지 팔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에미상’ 수상자들 27일(현지시각) 로스앤젤레스에서 거행된 제58회 에미상 시상식에서 TV 액션드라마 ‘24’가 최우수 드라마시리즈상과 연출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어 3관왕을 차지했다. 메리 린 리즈홀과 키퍼 서덜랜드, 킴 레이버, 진 스미트(왼쪽부터) 등 출연진이 시상대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집 사려다..’ 가계 빚 546조

가구당 3,412만원

부동산 구입 등의 용도로 가계의 금융기관 대출이 4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빚 규모가 6월말 현재 54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구매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545조4천95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6조7천287억원이 증가했다. 2·4분기의 가계신용 증가규모는 1분기의 7조2천713억원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남발에 따른 거품소비 가 절정을 이뤘던 2002년 3분기의 가계

신용 증가액 26조8천억원 이후 15분기만에 가장 큰 증가폭에 해당된다.

가계신용 잔액은 작년 9월말 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12월말 521조5천억원으로 다시 급증했으며 올해 3월말에는 528조8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잠시 둔화되는 듯 했으나 2분기에는 다시 증가폭이 가팔라졌다. 2분기 가계신용 증가액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증가액 15조8천억원으로 2002년 3분기의 25조5천억원 증가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부분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했는데, 시중은행의 2분기 가계대출 가운데 용도별 구성에서 주택용도 비중이 53.8%를 차지한 반면 소비 및 기타 용도는 46.2%에 그쳤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작년 GDP 7,875억달러... 세계 12위 1인 국민소득 1만6천달러...세계 29위

200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 1인당 국민소득(GNI)은 세계 29위를 나타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했다.

통계청은 28일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 국가의 통계자료를 비교한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는 전년보다 15.7% 증가한 7천875억달러로 11위인 브라질(7천961억달러) 다음으로 많았다. 우리나라의 GDP 규모는 세계 최대인 미국(12조4천872억달러)의 16분의 1, 2위인 일본(4조5천588억달러)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비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전년보다 14.8% 증가한 1만6천291달러를 기록, 세계 29위에 해당했다. 룩셈부르크(6만5천228달러)는 부동의 1위를 지켰다. 이외 미국(4만1천802달러)과 일본(3만6천431달러)은 5위와 12위를 차지했고 대만(1만5천676달러)은 우리나라 다음인 30위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놓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 수준이 낮은 편에 속했다.

한국 주요지표 세계 순위		
주요지표	수치	순위
국내총생산 (GDP, 2005)	7,875억달러	12
1인당 국민소득 (GNI, 2005)	16,291달러	29
수출액 (2005)	28,449억달러	12
수입액 (2005)	2,629억달러	13
유형외환보유액 (2005)	68.3%	9
외환보유액 (2005)	2,019억달러	4
경제성장률 (2005)	4.0%	7
조경성장률 (2005)	4.78%	5
상업은행 (2005)	1,003억7천000만 달러	1
자동차 생산량 (2005)	369만대	5
철 생산량 (2005)	648만톤	13
인구 (2004)	46,000만명	3
인간개발지수 (2005)	0.901	28
비에너지 총 소비량 (2005)	2,924,600TJ	10
1인당 에너지 소비량 (2005)	4,650.7kg	18
총 인구 (2005)	4,549만7천명	25

연립뉴스

“당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도...” 노대통령 유연성?

정국현안·당적 문제 등 기본입장 변화 두드러져

당·청관계를 대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가 눈에 띄게 유연해지고 있다. 5·31 지방선거 이후 각종 정국 현안 대처와 정책조율 과정에서 여당의 목소리를 듣고 대체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 이후 이러한 노 대통령의 변신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잇단 선거 참패를 계기로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처한 정치 현실에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우선 당청간 불일치로 지적돼온 당적 유지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부터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대연정 제안 당시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올 2월 여당 지도부 앞에서 이를 공개해 정국에 파장을 낳았었다.

그러던 노 대통령은 지난 6일 여당 지도부에 대해 “탈당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퇴임 후 백의종군의사를 밝힌 데 이어 20일엔 “퇴임 이후 당에 돌아가고 싶은데 고문이라도 시켜달라”며 퇴임 후 구체적인 역할까지 거론했다.

그간 탈당문제를 관련해 노 대통령 스스로 ‘미래과제’를 거론하며 당·청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밝혀왔던 점에 비추면 근본적 입장 변화로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더 나아가 지난 24일 여당 재선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대해 “감당할 용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물론 “차별화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위해 당이 원한다면 “꼭 필요하다면 나를 밟고 가도 감당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당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이는 여당의 요구로 김병준 교육부총리 사퇴가 이뤄진 지난 2일 노 대통령이 “그렇게 대통령을 때려서 잘 된 사람 하나도 못봤다”며 여당 지도부에 강한 유감을 표출한 것에 미뤄보면 의미있는 태도 변화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나친 ‘자주’포장 국가적 실익 놓쳐”

최재천 우리당의원 주장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28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문제 등으로 한미 양국간 갈등양상을 보여온데 대해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자주(自主)’라는 포장통을 통해서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고, 국가적인 실익을 놓쳤다는 점에서는 강력하게 비판하고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최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국정부가 그동안 너무 자주를 내세우다 보니 오히려 미국이 이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자주’로 포장된 사례로 용산 미군기지의 편택 이전, 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들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AIDS바이러스 침투 억제 메커니즘 규명 재미교포 김희보씨

20대 후반의 재미교포 연구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베크만연구소(Beckman Research Institute)의 박사 과정 학생인 김희보(27·미국명 Daniel.H.Kim)씨는 ‘Argonaute 1’이란 단백질이 AIDS 바이러스의 침투에 필수인 ‘CCR5’란 물질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의 자매지인 ‘네이처 구조 및 분자생물학(Nature Structural and Molecular Biology)’ 온라인판 27일자에 게재됐다. 김씨는 “이번에 규명된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향후 Argonaute 1 단백질의 CCR5 억제 작용을 이용, 새로운 에이즈 치료제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목사의 아들인 김씨는 캘리포니아공대(칼텍)에서 생물학을 전공했다. /연합뉴스

축 광복 제61주년

“관광객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시민의 친절과 서비스는 우리 목포의 관광상품입니다



-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주영순
-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장임진우
- (주)행남자기 창업회장 김준행
- 신안관광(주) 회장 김용주
- 신안건설산업(주) 회장 우경선
- (주)목포상그리아비치호텔 임직원 일동
- 가산토건(주) 대표이사 조경구
- 남옥건설 대표이사 이윤남
- (주)부국건설 대표이사 이상현

- (주)금호건설 임직원 일동
- (유)금강환경 대표이사 박종남
- (주)옥주건설 대표이사 김영권
- 가업건설(주) 대표이사 장진술
- 정승건설(주) 대표이사 조인형
- (주)목포흥익저축은행 임직원 일동
- K T 목포지사 임직원 일동
- 전라남도목포교육청 임직원 일동
- 한국전력공사목포지점 임직원 일동
- 한국농촌공사영산강사업단 임직원 일동

- 목포수산업협동조합 임직원 일동
- (주)동명전력사 임직원 일동
- 한국기독교장로회전남지회 회원 일동
- 목포의료원 임직원 일동
- 한국병원 임직원 일동
- 학교법인중앙병원 임직원 일동
- 목포기독병원 임직원 일동
- 목포전남병원 임직원 일동
- 목포관광협회 회원 일동